



이용규

'3600' 넘어 1위까지 훔친다

KIA 프로야구 첫 3600도루 -8 ... 이용규·김선빈·신종길 '폭풍질주'



스피드를 업그레이드한 호랑이 군단이 3600도루에 도전한다.
지난해 도루부문 최하위를 기록했던 KIA는 올 시즌 '기동력'을 신무기로 해 상대 공략에 나서고 있다. 13일 현재 KIA 타자들이 기록한 도루는 60개.
'슈퍼소닉' 이대형을 보유한 LG가 70차례 베이스를 훔치며 도루부문 1위에 올라있고, KIA와 삼성이 60개로 공동 2위다.

성공률에서는 단연 KIA가 앞서 있다. LG가 95차례의 시도에서 70개를 성공시키며 73.7%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지만, KIA는 79차례 도전중 60개의 도루를 만들어 75.9%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

42개의 도루와 41개의 도루 실패를 기록한 한화의 50.6%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효율적으로 도루를 생산해내고 있는 KIA는 8개의 도루만 추가하면 프로야구 사상 첫 3600도루를 달성한 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3600도루를 완성시킬 유력한 후보는 톱타자 이

용규다. 이용규는 13개의 도루로 팀내 2위지만 효과만점의 도루로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줬다.

이용규는 지난 4일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2-2로 맞선 8회초에 3루 도루를 시도한 뒤 포수의 악송구가 나온 틈을 타 홈까지 파고들면서 팀에 3-2 승리를 안겨줬다.

11일 LG와의 경기에서 통산 18번째로 7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기록을 세운 이용규는 12일에는 1회부터 도루 두 개를 추가하는 기동력을 발휘하며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이용규는 "복사해 끝낼 부상 이후 뛰는 것이 조

심스럽기도 하고 도루에 큰 욕심은 없다. 하지만 도루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뛸 생각이 다"고 언급했다.

유격수 김선빈도 3600도루에 도전하는 후보다.

17개로 도루부문 전체 3위에 올라있는 김선빈은 재치있는 타격센스와 주루플레이로 이용규와 함께 공포의 테이블세터진을 구성하고 있다.

김선빈은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3할과 30도루를 목표로 내세웠다. 날렵한 모습으로 개인 목표를 달성하고 팀 승리를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팀 3500도루의 주인공이 됐던 '폭풍질주' 신종길도 기록 달성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시즌을 앞두고 매서운 타격을 보여줬던 신종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회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KIA 최고 주력을 자랑한다.

올 시즌 11개의 도루에 성공한 신종길은 "타석에서 아직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장 자신있고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주루다. 빠른 발로 점수를 만들어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악명 높은 코스... 언더 치면 우승

US오픈 내일 개막



16일(현지시간)부터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이 열리는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셔널 골프장은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2007년 이곳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에서 최경주(41·SK텔레콤)가 우승했고, 2008년 같은 대회에서는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이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그러나 메이저대회 중에서도 특히 US오픈은 아시아 선수들이 넘기 어려운 벽이다. 대회를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가 까다롭게 코스를 세팅해 놓기 때문이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 대회를 제패했던 양용은(39·KB금융그룹)도 US오픈에서는 두 번 출전해 모두 컷 탈락했고, 최

경주는 US오픈 최고 성적이 2005년 공동 15위에 불과하다. 최경주는 다른 메이저 대회에서는 모두 10위 안에 올랐던 경험이 있지만 유독 US오픈에서만 힘을 쓰지 못했다.
US오픈은 마스터스와 달리 해마다 대회가 열리는 코스가 달라지지만, 코스 난도는 늘 어렵게 세팅되는 편이다. 2005년 이후로 언더파 점수로 우승한 선수가 2008년 타이거 우즈(1언더파), 2009년 루카스 클로버(4언더파) 등 두 명뿐이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연달아 5오버파가 우승 스포커였다.

올해 대회에서도 코스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71에 7574야드 코스에서 가장 긴 9번 홀(파5)은 636야드나 되고, 파4 홀 가운데 가장 긴 18번 홀은 523야드에 이른다.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으려면 두 번째 샷으로 그린에 올려야 하는데 웬만한 장타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파3인 2번 홀은 233야드다. 1997년 US오픈 때보다 50야드가 길어진 490야드의 파4 15번 홀도 어려운 홀로 꼽힌다.
/연합뉴스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이 열리는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셔널 골프장 10번 홀에서 14일 미국의 스코트 피어시가 연습 라운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메이저 우승 도전 '탱크' 최경주 "롱아이언으로 승부"

16일(미국 현지시간) 개막하는 제111회 US오픈 골프대회에 출전하는 최경주(41·SK텔레콤)가 롱 아이언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지난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상승세를 탄 최경주는 US오픈 출전을 앞두고 현지에서 한 언론인터뷰에서 "4번이나 5번 아이언으로 딱딱한 롱그레셔널 골프장의 그린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주는 "나는 장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이나 5번 아이언으로 두 번째 샷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롱 아이언으로 볼을 높이 띄워 그린에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경주는 US오픈 대회 장소인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셔널 골프장에서 2007년 열린 AT&T 내셔널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경주는 "흠에 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라며 "하지만 우승했던 4년 전과 US오픈이 열리는 올해는 코스 세팅이 완전히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콩그레셔널 골프장은 전통적으로 깊은 러프와 좁은 페어웨이, 그리고 빠르고 딱딱한 그린으로 악명이 높다.

최경주는 한국시간으로 16일 오후 8시44분 매트 쿠차(미국), 폴 케시(잉글랜드)와 함께 1라운드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한국 역도 '왕중왕전' 열린다

한국 역도 국가대표들의 경기를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대회가 열린다. 대한역도연맹은 오는 24일 충남 아산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선수권대회에서 각 체급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는 형식으로 경기를 치른다고 14일 밝혔다.

대회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과 사재혁을 비롯해 윤진희, 김수경, 문유라, 지훈민, 김민재, 김선배, 김화승, 안용권 등 각 관선수들이 모두 출전한다.

제할에 전념해왔던 장미란과 사재혁 등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에 나와 회복한 기량을

체급 다른 국가대표 맞대결
장미란·사재혁 등 총출전

을 보여줄 계획이다.

역도연맹은 출전들이 체급이 모두 다르지만 맞대결하는 것처럼 번갈아 플랫폼에 나와 바벨을 들어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체급별로 경기를 여는 원칙을 깨는 희한한 방식이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출전자와 같은 체급인 선수들은 미리 경기를 끝내놓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경기결과를 기다린다. 이색적인 경기가 열리게 된 원인은 지상파 방송 일정이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정됐기 때문이다.
연맹 관계자는 "짧은 방송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스포츠팬들에게 국가대표 1진들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간: 2011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Hot"한 여름을 "Cool"하게 날려주세요

신양파크호텔 Beer Party! 매일 저녁 Cool하게 즐깁시다!!

샐러드 뷔페 이용시 맥주 및 음료가 무제한 공짜!! ₩27,500 (세금포함)

행사장소: 6F SKY LOUNGE 상기 이벤트는 매일 오후 6시 부터 12시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예약문의 : TEL. 062)228-8000 / 062)221-4130